2026년 03월 31일 | 산업분석_Update

통신서비스 4월 투자 전략

1분기 실적/배당이 주가 방향성 결정할 전망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3월 31일

SKT(017670)
BUY | TP 100,000원 | CP 78,300원

KT(030200)
BUY | TP 76,000원 | CP 60,800원

LGU+(032640)
BUY | TP 20,000원 | CP 15,400원

4월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유지, 이익 성장/DPS 상승 기대감이 주가 올릴 것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더불어 2026년 4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를 '높음'으로 제시한다. 4월엔 1분기 프리뷰가 시작되고 첫번째 분기 배당이 발표될 것인데 실적이 나름 양호하고 SKT 배당 정상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LGU+를 제외하면 1분기 통신사 실적이 YoY 증가는 어려울 전망이다. 2025년 1분기 SKT와 KT 실적이 우수한데 따른 역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적보단 1분기 배당이 통신사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SKT가 전년동기 수준의 DPS, 전분기 무배당에서 배당 정상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제 혜택도 클 전망이다. 특히 SKT의 경우엔 비과세 배당이 예상되어 현 주가 수준에서 장/단기 매수세가 나타날 공산이 크다는 판단이다.

5G SA 도입/피지컬 AI 통신사 수혜 가능성에 서서히 관심 높아질 전망

4월 통신 이슈는 그리 많지 않다. 1) SKT/KT 1분기 배당금 발표, 2) 증권사 1분기 실적 프리뷰 발간, 3) 비과세/배당 분리과세 정책 발표, 4) 피지컬 AI 활성화를 위한 5G SA 도입 논의 등이 주된 이슈가 될 전망이다. 4월 통신 서비스 업종 이슈가 많진 않지만 굵직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통신사 주가에 미칠 파장은 예상보다 클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특히 장기 이슈이긴 하지만 하반기 이후 피지컬 AI 성공을 위한 5G SA로의 진화에 나설 공산이 크단 점은 Multiple 확장을 이끌 수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궁극적으론 피지컬 AI와 양자암호통신을 서비스해 새로운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새로운 요금제 출시가 통신사 서비스매출액 성장의 원천이었고 이를 통해 장기 배당성장의 근간을 마련했다고 보면 장기 실적 기대감 확산과 더불어 Multiple 확장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4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LGU+>KT, DPS 흐름 우수할 SKT 최선호

통신서비스 업종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하며 4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종목별 투자 매력도를 SKT>LGU+>KT 순으로 평가한다. 4월에도 SKT를 최선호 종목으로 제시하는데 당장 1분기부터 비과세 배당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1분기 DPS가 2024년 수준으로 정상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세후 수익률이 4.6%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단기 매수세 유입이 기대된다. 여기에 장기적으론 피지컬 AI 육성 수혜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상반기내 SKT가 국책 AI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양자암호통신 분야 성과도 가장 우수하기 때문이다. 통신서비스 업체 치곤 재료가 많고 기대 배당수익률이 우수하며 수급도 양호할 전망이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1. 4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제시

1)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의견 '비중확대'로 유지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 장기 실적 및 배당 전망 밝고 아직 저평가 상황이기 때문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 이유는 1)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주주이익환원 확대 움직임이 지속될 전망이고, 2) 네트워크 진화 이벤트 및 시중 금리 추이를 감안하면 국내 통신 3사 배당수익률이 높은 상황이며, 3) 2026년도 연말엔 5G SA 전환에 따른 새로운 요금제 출시가 예상되고, 4) 글로벌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통신 규제 정책이 요금인하 권고에서 통신산업 육성 쪽으로 전환될 전망이며, 5) 본질적으론 2027년에나 통신사업 이익 성장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차세대 서비스 개시 기대감으로 2026년 Multiple 확장 국면이 미리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도표 1.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의견

구분	투자의견 (4월)	투자의견 (3월)	등급 변화	사유
통신 업종	비중확대	비중확대	-	• 통신사 장기 주주환원금액 증가 추세 유지될 것 • DPS 성장 가능성 감안 시 통신 3사 배당수익률 높은 상황 • 5G SA 도입 이후 통신사 새로운 요금제 출시 전망 • 통신 규제 정책이 산업 육성 쪽으로 전환될 것 • 이익 성장 기대감 높아지며 Multiple 확장 국면 진입 예상

주: 업종 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 기준으로 비중확대, 중립, 비중축소로 구분
자료: 하나증권

2) 4월 투자 매력도 '높음' 제시, 1분기 DPS와 실적이 주가 상승 기대감 높일 것

4월 통신주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유지, 1분기 프리뷰와 DPS 발표되면서 SKT 위주로 주가 오를 것

2026년 4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를 '높음'으로 유지한다. 4월엔 1분기 프리뷰가 시작되고 첫번째 분기 배당이 발표될 것인데 실적이 나름 양호하고 SKT 배당 정상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LGU+를 제외하면 1분기 통신사 연결 영업이익이 YoY 증가는 어려울 전망이다. 2025년 1분기 SKT와 KT 실적이 우수한데 따른 역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SKT는 최상의 비용 구조를 나타났던 시점이고 KT는 부동산 분양 수익 발생이 컸던 시기라 전분기비 이익 증가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 단 LGU+는 CES 비용 등 2025년 1분기 비용 집행이 많았던 시점이라 2026년 1분기엔 양호한 실적 달성이 예상된다.

금년에 첫번째로 발표될 분기 배당금도 기대를 갖게 한다. KT는 증액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SKT의 경우엔 전년동기비 수준의 DPS, 전분기 무배당에서 배당 정상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제 혜택도 클 전망이다. KT는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것이며 SKT의 경우엔 비과세 배당이 예상되어 현 주가 수준에서 장/단기 매수세가 나타날 공산이 커 보인다. 당장 1분기 배당부터 비과세 배당이 적용된다고 보면 4월 SKT 주가 전망을 밝게 한다. 1분기 DPS가 800~900원 수준이 될 것임을 감안하면 4월 내 10만원까지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국내 통신사 주가가 저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투자가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과거 역사적 Multiple과 기대배당수익률을 감안하면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판단한다. 과거 통신서비스 업종은 새로운 네트워크의 출현과 요금제 개편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였다. 더불어 통신서비스 업체들의 배당수익률 밴드는 요금제 개편 논의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낮아지는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과거 흐름을 감안하면 결코 현재 국내 통신서비스 업체 주가는 결코 비싸지 않다고 평가한다. 통신서비스 업종 기대배당수익률이 여전히 4%를 넘어서는 상황이며 PBR 역시 평균 1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5G와 LTE 도입 당시를 생각해보면 통신서비스 업종 배당수익률 밴드는 3%를 깨고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 비싸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올해 MWC에선 6G, AI의 확장성, 새로운 디바이스의 출현, 지상망과 위성망의 연동이 주된 이슈였다. 결국 향후 통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AI를 통한 이익 창출 방안, 효율적인 네트워크 투자/관리 방안, 새로운 단말을 통한 서비스 매출액 증대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통신산업은 투자 감소와 서비스 매출액 정체를 겪으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 중이다. 그런데 AI는 유료화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차세대 디바이스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통신 서비스 업체들은 지상망과 위성을 결합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가운데 AI와 양자암호통신을 탑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 투자를 명분으로 요금제 업셀링에 나설 전망이다. 통신서비스 업종 PBR 상승, 배당수익률 밴드 하향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도표 2.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

구분	투자 매력도 (4월)	투자 매력도 (3월)	매력도 변화	사유
통신 업종	4	4	-	• SKT 1분기 DPS 800~900원으로 조기 정상화 전망 • LGU+ 1분기 연결 영업이익 YoY/QoQ 증가 전망 • SKT 비과세 배당 실시, KT 배당 분리 과세 적용 전망 • LGU+ 2026년 자사주 매입 규모 2025년 대비 증가 예상 • 낮은 기저로 SKT/LGU+ 2026년 높은 이익 성장 전망 • 피지컬 AI 성공 위해 국내도 5G SA 도입 예상 • 5G 신규 요금제 출시되면서 27년 APRU 상승 기대감 생길 것 • 성장 기대감 감안 시 통신사 기대배당수익률 여전히 매력적 • LTE/5G 도입 당시 대비 현재 통신사 Multiple 낮은 상황 • SKT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 소송 진행, 규제 공포 감소 양상 • 4차산업 패권 경쟁 이슈로 신정권 출범에도 규제 리스크 낮아 • 제 4 이통 주파수 할당 대가 일시납 추진, 사업자 선정 어려울 듯 • 제조사간 경쟁 미약, 국내 통신유통시장 과열 가능성 낮아 • 하반기 정책 금리 인하 예상, 통신사 배당수익률 매력적일 것

주: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으로 5. 매우 높음, 4. 높음, 3. 보통, 2. 낮음, 1. 매우 낮음으로 평가
자료: 하나증권

3) 3월 통신업종 수익률 KOSPI를 상회, 방어주적 성격은 약화되는 상황

최근 1개월간 통신주 수익률은 KOSPI 수익률을 상회, 약세장에서의 강한 모습은 다소 약화

3월 국내 통신 서비스 업종 수익률은 KOSPI 수익률을 상회하였다. 월초엔 통신서비스주가 1분기 실적과 배당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지 못하는 가운데 특별한 재료 없이 지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 하지만 월말 통신장비주 상승에 따른 5G SA 도입 기대감이 팽창하면서 통신서비스주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시장대비 초과 상승을 기록했다.

특이한 점은 최근 들어 통신주가 KOSPI 흐름과 정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점이다. 2월엔 주식 시장이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SKT를 중심으로 탄력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났으나 3월엔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통신주 상대적 강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강세장엔 강하고 약세장엔 약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과거 전형적인 방어주로서의 역할이 약화되는 모습이었다. 아무래도 2025년과는 달리 최근 통신주 상승엔 5G SA 도입 확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한 탓이었다.

종목별로는 SKT의 상대적 강세 양상이 이어졌다. 2월엔 SKT가 괄목할만한 주가 상승을 나타낸 가운데 월 후반엔 KT도 키 맞추기 차원에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는데 3월엔 통신 3사 모두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면서 하락 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표 3. 2026년 3월 통신서비스 업종 수익률 점검 (단위: %, %p)

업종명	1개월 등락률	3개월 등락률	1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3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통신업종	(2.4)	25.2	10.5	(2.9)

주: 지수는 3/27일 종가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4. 2026년 3월 KOSPI 대비 종목별 수익률 점검 (단위: %, %p)

종목명	1개월 등락률	3개월 등락률	1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3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SK텔레콤	0.1	50.5	13.0	21.3
KT	(4.7)	13.9	8.2	(14.1)
LG유플러스	(2.7)	6.9	10.2	(20.4)

주: 주가는 3/27일 종가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4) 4월 통신주 시장 수익률 수준 예상, SKT DPS 정상화/LGU+ 1Q 호실적에 주목

통신서비스 업종 4월엔 KOSPI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률 달성 전망

2026년 4월 통신 서비스 업종은 시장 수익률 수준의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LGU+를 제외하면 1분기 실적이 그리 좋진 않겠지만 SKT를 중심으로 배당 매력도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분기 DPS가 800~900원 수준으로 높아지고 비과세 배당도 시행될 것으로 보여 투자가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란 판단이다.

4월 통신 서비스 업종 이슈는 그리 많지 않다. 1) SKT/KT 1분기 배당금 발표, 2) 증권사 1분기 실적 프리뷰 발간, 3) 비과세/배당 분리과세 정책 발표, 4) 피지컬 AI 활성화를 위한 5G SA 도입 논의 등이 주된 이슈가 될 전망이다. 4월 통신 서비스 업종 이슈가 많진 않지만 굵직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통신사 주가에 미칠 파장은 예상보다 클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이슈는 거의 눈에 띠지 않는다. KT가 당장 배당금 인상을 단행하지 않고 있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지만 SKT가 배당 정상화에 나섬에 따라 다시 장기 DPS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것이며 비과세 배당 추진으로 세후 수익률 측면에선 매력적 권역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기 스토리이긴 하지만 하반기 이후 피지컬 AI 성공을 위한 5G SA로의 진화에 나설 공산이 크단 점은 Multiple 확장을 이끌 수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궁극적으론 피지컬 AI와 양자암호통신을 서비스해 새로운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새로운 요금제 출시가 통신사 서비스매출액 성장의 원천이었고 이를 통해 장기 배당 성장의 근간을 마련했다고 보면 장기 실적 기대감 확산과 더불어 Multiple 확장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번 MWC에서는 5G 단독 모드(SA)의 중요성이 부각됨과 동시에 5G Advanced, AI 기지국(AI 랜), 네트워크 API, 자동화 기술, 5G SA 요금제 도입 방안 등이 이슈화되었다. 결국 피지컬 AI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됨과 동시에 AI 성공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측면에서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말 이후 전세계 각국 규제 기관들이 5G SA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행보가 빨라지는 양상이다. 서서히 통신서비스 업종 Multiple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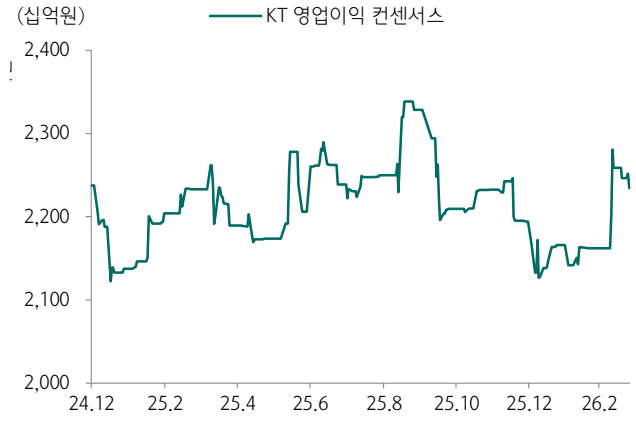
4월엔 SKT 비과세 배당 매력과 LGU+의 우수한 1분기 실적이 통신주 상승을 이끌 전망

도표 5. 4월 통신서비스 업종 이슈 점검

구분	내용
긍정적 요소	• SKT 2026년 1분기 DPS 800~900원으로 정상화 전망, 투자 심리 회복 예상 • SKT 자본 잉여금 활용한 비과세 배당 추진, 2026년 세후 배당 수익률 높아질 전망 • LGU+ 영업비용 감소로 2026년 1분기 실적 우수하게 발표될 전망 • 기저 효과로 2026년 SKT/LGU+ 높은 이익 성장 달성 전망 •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 발표, 국내도 2026년 5G SA로 전환 예상 • 피지컬 AI 경쟁 심화, 국내에서도 네트워크 고도화 전략 추진 본격화 전망 • 미국 AWS 3 주파수 대역 6월 경매 예정, 국내도 점차 네트워크 진화 기대감 높아질 전망 • 해킹 사태로 양자암호통신 부각, 차세대 서비스에 기본 탑재되며 킬러 서비스 역할 수행할 듯 • 제조사간 경쟁 어려워 단통법 폐지에도 국내 통신 유통 시장 크게 영향 받긴 어려운 상황 • 정책 금리 인하 및 시중 금리 하락으로 통신사 높은 배당수익률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 규제 당국 추진에도 제 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가능성 낮음, 재무적 이슈 여전히 크기 때문
부정적 요소	• 외국인 한도 적용 기업은 3년간 자사주 소각 유예 적용, KT 자사주 배당 전환 어려울 듯 • 2025년 1분기 기저 높은 관계로 2026년 1분기 국내 통신산업 실적 부진 예상 • LGU+ 2026년 자사주 소각 규모 감소로 연간 주주이익환원 규모 올해 수준에 그칠 전망 • 2024년 이후 트래픽 정체 양상 심각, 요금제 개편 없을 시 통신사 매출 증가 우려감 커질 것 • 통신사+금융권 합산 알뜰폰 M/S 60%로 제한 전망, MVNO 가입자 확대에 제동 걸릴 전망 • 5G 순증 가입자수 월 20만명대로 급감, 이동전화매출액 성장 우려 커질 전망 • AI 등 신사업 성과 부진, 유료화/요금제 도입 험난한 상황 • 국내 통신사 PBR 낮지만 해외 통신사 대비 ROE가 낮은 편
종합 평가	• 통신사 2026년 이익 증가, DPS 성장 흐름 전망, 5G SA 도입 기대감 팽창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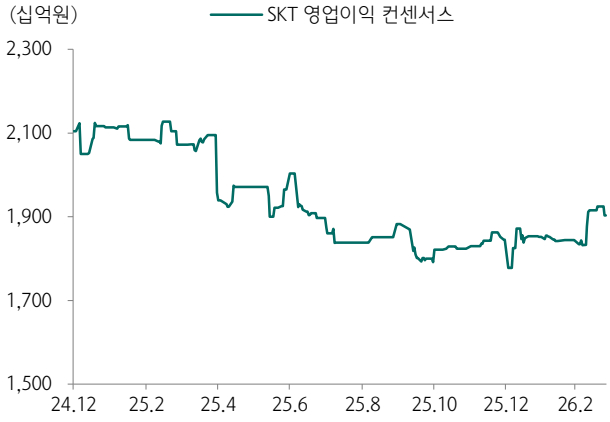
자료: 하나증권

도표 6. KT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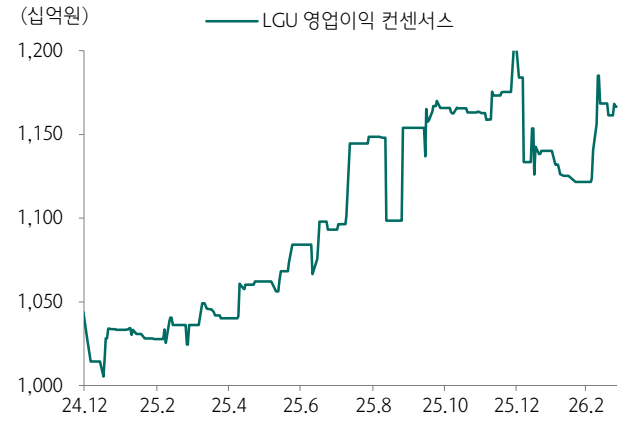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7. SKT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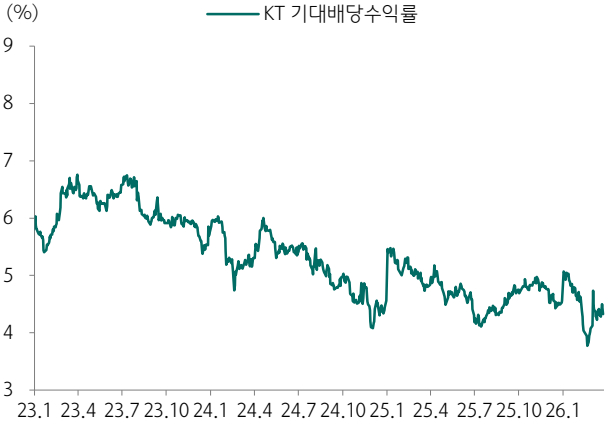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8. LG유플러스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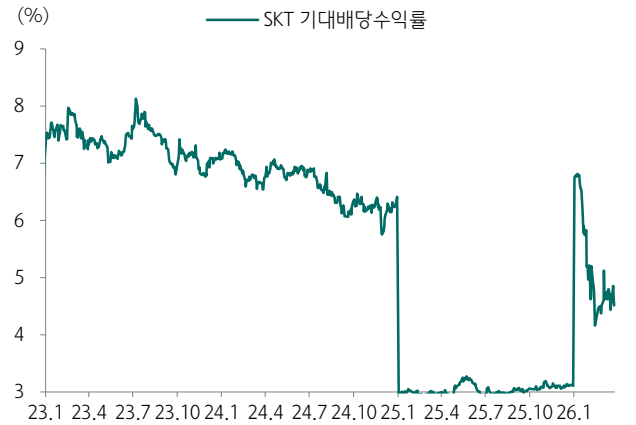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9. KT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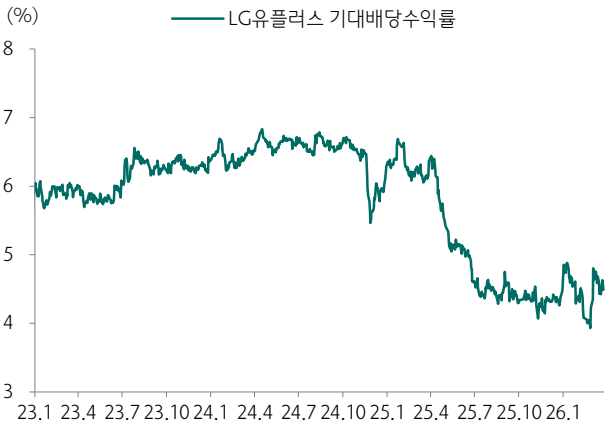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0. SK텔레콤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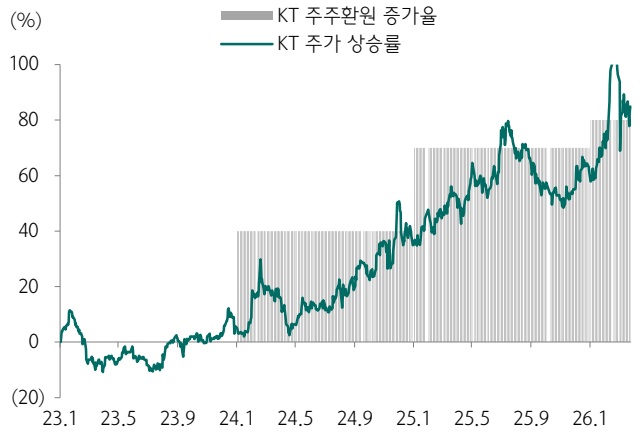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1. LG 유플러스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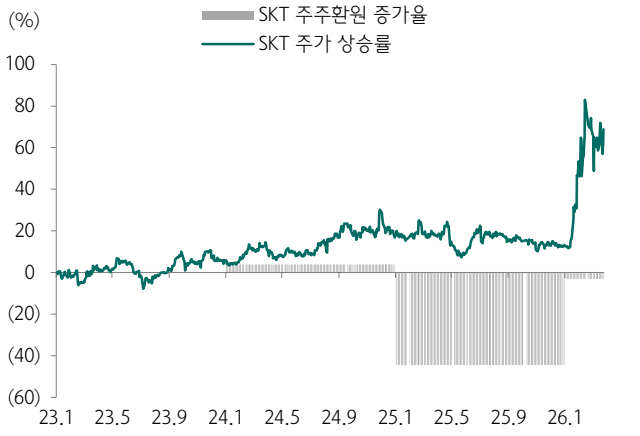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2. KT 2년전 대비 주주환원 vs 주가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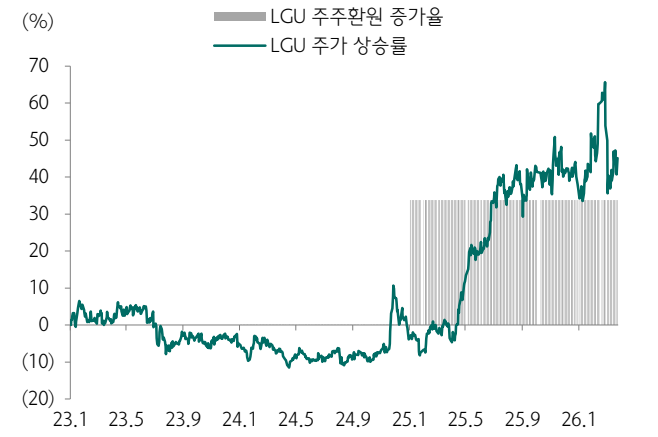
주: 2023.1=100 기준, 2026년 주주환원금액은 하나증권 추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3. SK텔레콤 2년전 대비 주주환원 vs 주가 상승률 비교



주: 2023.1=100 기준, 2026년 주주환원금액은 하나증권 추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4. LG유플러스 2년전 대비 주주환원 vs 주가 상승률 비교



주: 2023.1=100 기준, 2026년 주주환원금액은 하나증권 추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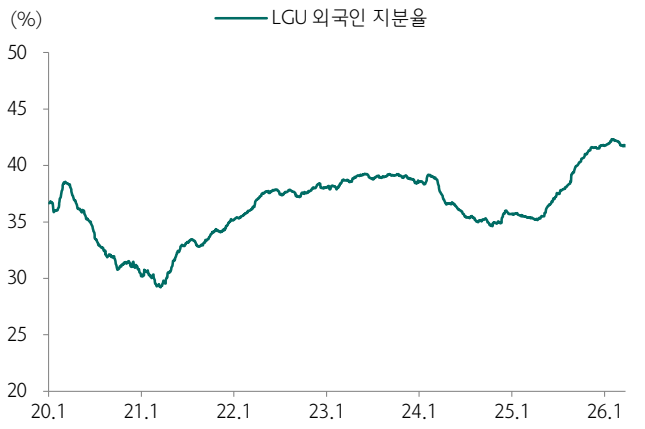
도표 15. KT 외국인 지분율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6. SK텔레콤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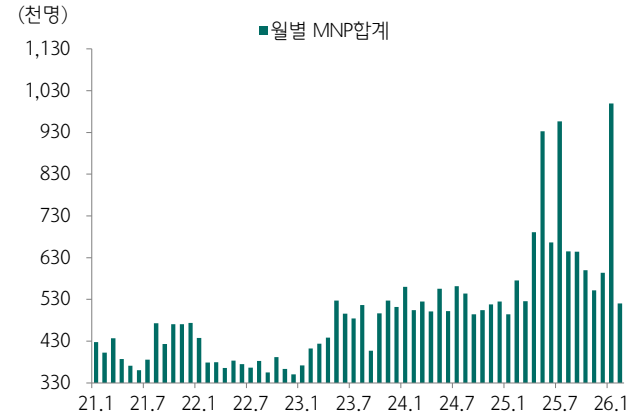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7. LG유플러스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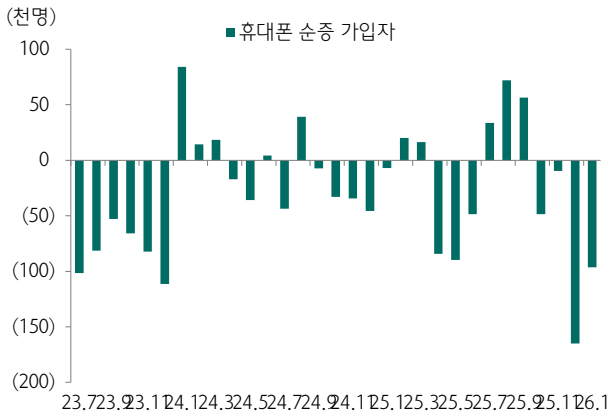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8. 월별 이동통신 MNP 합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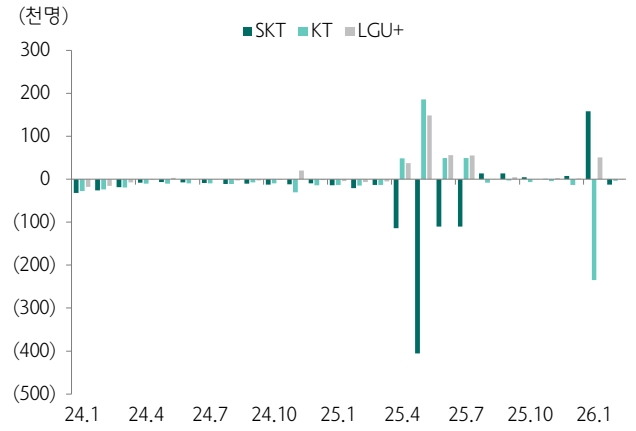
자료: KTOA, 하나증권

도표 19. 휴대폰 순증가입자수 추이(통신 3사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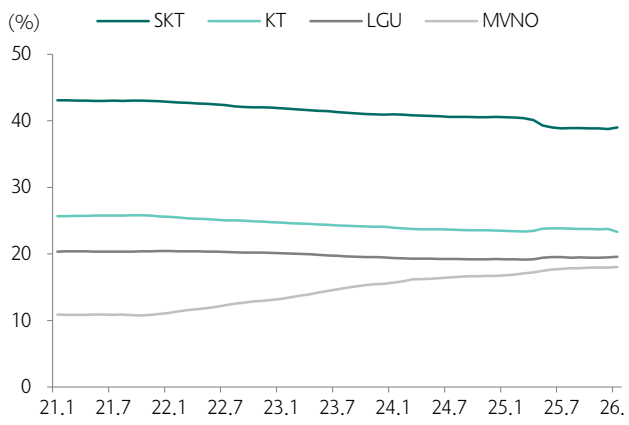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0. 사업자별 MNP 순증(순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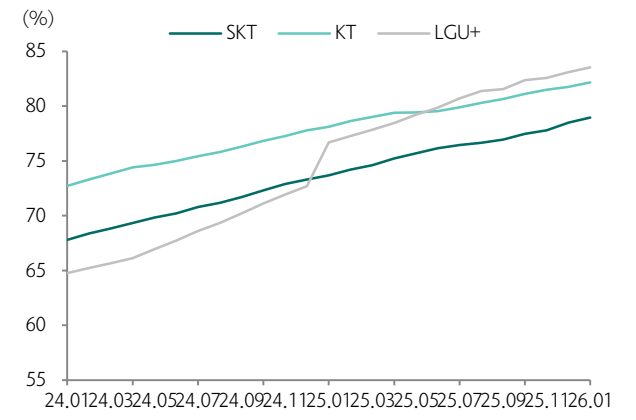
자료: KTOA, 하나증권

도표 21. 휴대폰 누적가입자수 M/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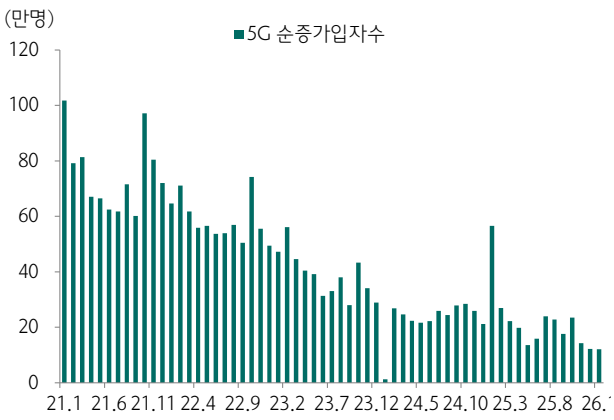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2. 통신 3사 5G 보급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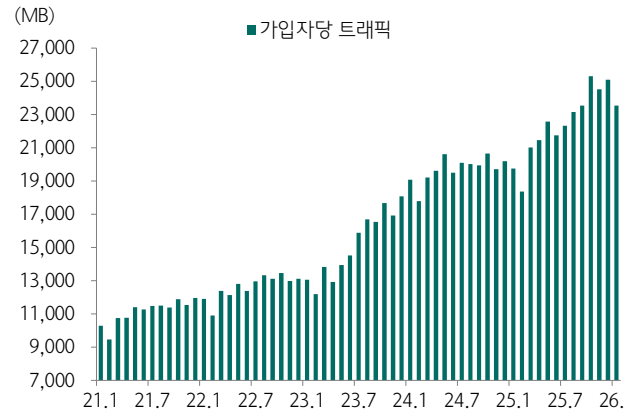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3. 5G 순증가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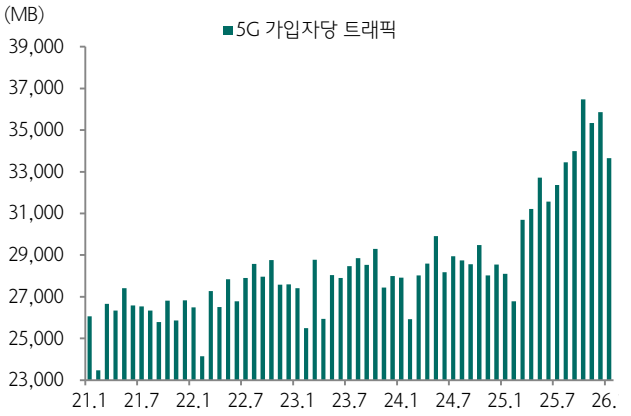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4. 국내 가입자당 트래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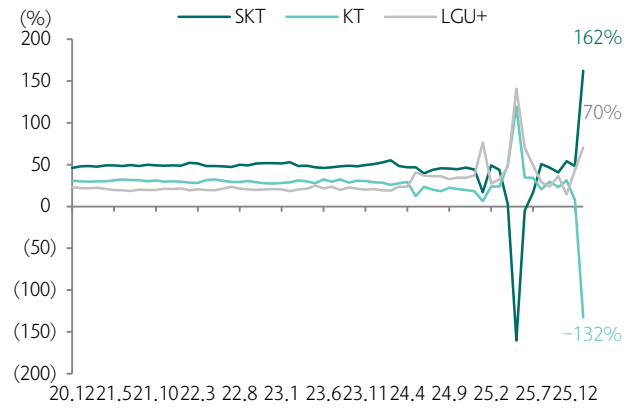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5. 5G 가입자당 트래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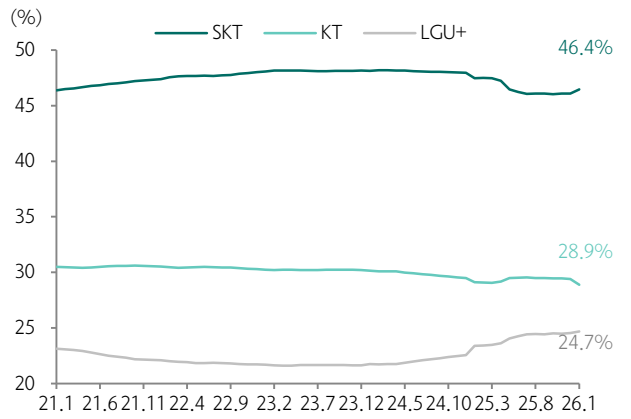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6. 5G 순증 가입자 M/S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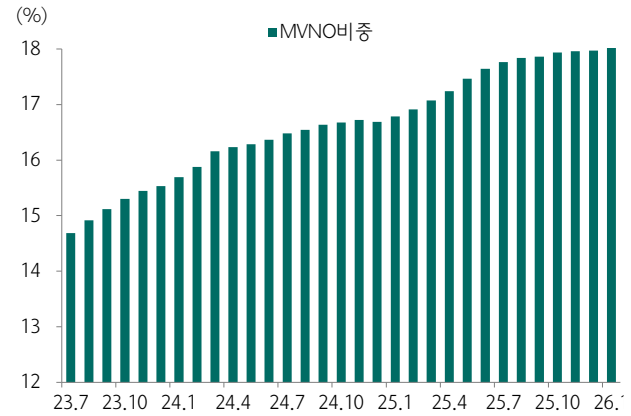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7. 5G 누적 가입자 M/S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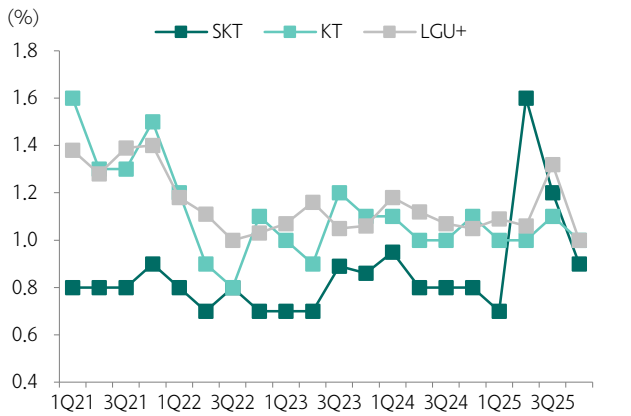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8. MVNO(재판매)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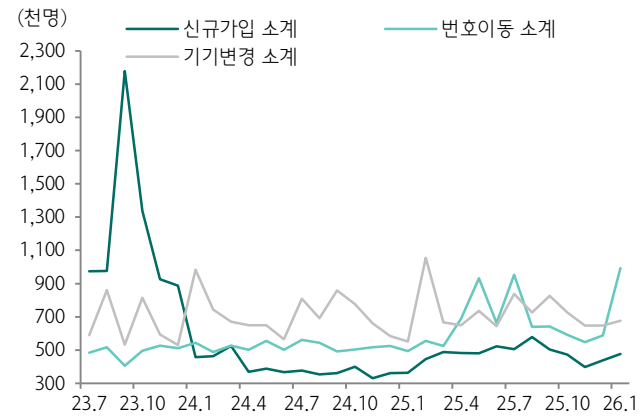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9. 통신 3사 분기별 해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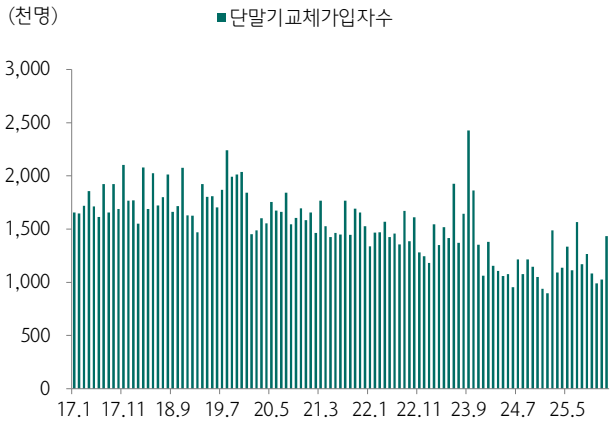
자료: 각 사, 하나증권

도표 30. 이동전화 가입 유형별 가입자수 추이 (재판매제외)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31. 통신 3사 단말기교체가입자수(신규+기변+MNP) 합계 추이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2.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 4월 투자매력도는 SKT>LGU+>KT 순으로 평가

1)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 2026년에는 이익 급성장 속에 DPS 정상화/비과세 배당 예상되기 때문

통신서비스업종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한다. 1) 장/단기 이익 흐름 및 성장률, 2) 장/단기 배당 또는 주주이익환원 성장률, 3) 기대 배당 수익률 및 주주환원 수익률, 4) 네트워크 경쟁력 및 차세대 서비스 도입에 따른 수혜 정도, 5) M/S 추이 및 매출액 성장률, 6) 마케팅비용/감가상각비/경비 등 비용 전망, 7) 정부 규제 영향, 8) 유통 경쟁력 및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9) 신사업 및 M&A가 실적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 10) 자회사 실적 및 IPO 추진 예상, 11)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러한 기준 하에 향후 12개월간 투자 매력도를 평가하면 통신 3사 중 SKT가 가장 투자 유망하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SKT를 12개월 장기 Top Pick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2025년과는 달리 2026년도에는 이익 성장이 유력한 가운데 DPS 정상화 및 비과세 배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후 수익률로 보면 매력적인 상황이라 투자가들의 주목을 끌 것이란 판단이다. 2026년도엔 연결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일회성손익도 개선될 소지가 커 배당 전망을 밝게 한다. 당초엔 2027년에나 배당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2026년에 배당금이 예년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져 긍정적 주가 전망을 하게 한다.

도표 32. 통신 3사 투자 환경상 긍정적/부정적 요인 점검

구분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SKT	• 회계적으로 해킹 관련 손실 전액 반영 • 낮은 기저로 2026년도엔 높은 이익 성장 전망 • SK브로드밴드 실적 호전 본격화, 자회사 배당금 유입 지속될 전망 • 주식 매각 차익 발생 전망, 2026년도엔 DPS 급증 예상	• 휴대폰 가입자 감소 지속, M/S 하락 양상 • 5G 가입자 정체/이동전화매출액 정체 양상 • 5G SA로의 진화, 신규 요금제 출시 지연 • 배당 성향 50% 상회, 이익 증가 나와야 장기 배당 성장 가능
KT	• 인건비/경비 감소로 본사 이익 성장 장기 지속될 전망 • 부동산 분양 이익 발생으로 자회사 실적 호전 지속 전망 • 실질 자산가치대비 시가총액 작은 상황 • 낮은 PBR 개선 시키기 위한 정책 나올 수 있는 상황	• 외국인 한도 존재, 자사주 소각 현실적으로 어려워 • 인당 효율성 낮음, 과다한 영업비용 존재 • 외국인 한도 소진, 수급상 불리함 존재 • PBR 낮지만 3사 중 ROE도 가장 낮은 편
LGU+	• 이익 성장률/배당 성향 수준으로 볼 때 장기 배당 증가 여력 존재 • 비용 이슈 종결, 이익 측면에서 양호한 흐름으로 전환 예상 • 2026년 높은 연결 영업이익 성장 기록할 전망 • 통신 3사 중 PER, PBR 가장 낮음, 상대 서비스 매출액 성장률 높음	• 이동전화매출액 성장 둔화, B2B 매출 성장 폭 둔화 • 과거 대비 낮은 5G 순증 가입자 M/S 기록 중 • 주주 환원 규모로 보면 2026년 단기 정체 예상 • 배당수익률만 보면 그리 높지 않은 편
종합평가	• 2026년 이익 급증, DPS 조기 정상화 가능성 감안하여 SKT를 12개월 최선호주로 선정	

자료: 하나증권

2) 4월 매력도는 SKT>LGU+>KT 순, 1분기 DPS 감안해 SKT 최선호

4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LGU+>KT 순으로 평가, DPS 정상화 기대감 커질 SKT Top Pick으로 제시

단기적으로 4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종목별 투자 매력도를 SKT>LGU+>KT 순으로 제시하고 12개월 Top Pick과 마찬가지로 4월 통신서비스 월간 Top Pick 역시 SKT로 제시한다. 이익/DPS 방향성이 좋고 기대배당수익률 역시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SKT는 4월 단기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판단이다. 당장 1분기부터 비과세 배당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1분기 DPS가 2024년 수준으로 정상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세후 수익률이 4.6%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단기 매수세 유입이 기대된다. 여기에 장기적으론 피지컬 AI 육성 수혜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상반기내 SKT가 국책 AI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양자암호통신 분야 성과도 가장 우수하기 때문이다. 통신서비스 업체 치곤 재료가 많고 기대 배당수익률이 우수하며 수급도 양호할 전망이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5G SA로의 전환을 맞이하여 양자암호통신과 AI를 요금제에 탑재하는 모습이 나타날 텐데 퀀텀 부문 및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어 5G SA 시대에 선발주로서의 모습을 갖출 것이란 판단이다.

LGU+ 역시 4월에는 주가 전망이 밝은 편이다. 어닝 시즌을 맞이하여 우수한 1분기 영업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며 올해 자사주 매입 증액에 대한 느낌을 전달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5년 1분기 LGU+ 영업실적은 좋지 않았다. 이동전화매출액 정체 속에 CES 비용 등 영업비용 증가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6년 1분기 실적은 양호할 전망이다. SKT 영업정지 덕택을 하반기에 본 상황이고 이러한 영향이 올해 1분기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1분기 실적 호전을 기반으로 2026년 두 자리 수 높은 이익 성장과 더불어 6%에 달하는 DPS 성장, 지난해대비 100억원 이상 늘어난 자사주 매입 가능성이 주가 상승 재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반면 KT의 경우엔 상반기까진 특별한 호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박스권 주가 등락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자사주의 배당 전환은 물 건너간 상황이며 1분기 실적은 역기저 효과로 썩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3월 말 신임 경영진이 취임하자 마자 당장 4월 1분기 배당 증액 결정을 할 가능성도 낮다고 보면 투자 심리가 개선될 소지는 낮다는 판단이다. 혹시라도 1분기 배당금이 700원으로 발표된다면 주가 반등 소지가 있겠으나 기존의 600원을 유지한다고 발표하면 7만원 이상에선 차익 실현에 나설 것을 권한다.

도표 33.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 의견

구분	투자의견	목표가 (12개월)	사유
SKT	매수	100,000원	• 2026년도엔 높은 이익 성장, DPS 다시 큰 폭 증가 전환 예상
KT	매수	76,000원	• 2026년에도 본사 이익 성장 전망, 부동산 자회사 이익 개선 예상
LGU+	매수	20,000원	• 2026년 높은 연결 영업이익 성장 전망, 낮은 PBR/PER

주: 1) 종목 투자 등급은 1. 매수, 2. 중립, 3. 비중축소, 2)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도표 34. 4월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매력도 순위

순위	종목명	주가(3/27)	3개월 예상 주가 밴드	P/E	P/B	평가 사유
1	SKT	79,900원	75,000~100,000원	14.9	1.3	• 올해 조기 DPS 정상화 예상, 국내 대표 양자암호+국책 AI 수혜주
2	LGU+	16,100원	15,000~20,000원	9.5	0.8	• 2026년 이익 급증 전망, 2027년 주주환원 기대감 높아질 것
3	KT	60,800원	55,000~70,000원	8.6	0.7	• 1Q DPS 상승 없으면 주가 상승 폭 예상보다 적을 수도

주: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단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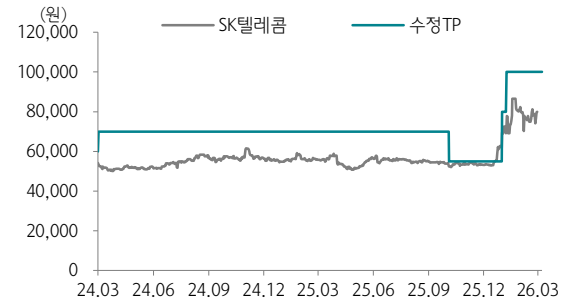
도표 35. 4월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매력도 순위 변화

구분	순위(4월)	순위(3월)	순위 변화	사유
SKT	1	1	-	• 이익 성장/현금흐름 개선으로 2026년 조기 배당 정상화 전망
LGU+	2	2	-	• 2026년에도 900억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 예상, 장기 밸류업 기대감 높아질 것
KT	3	3	-	• 거버넌스 리스크 해소, 하지만 DPS/이익 단기 전망 어두워 탄력적 주가 상승 어려울 듯

주: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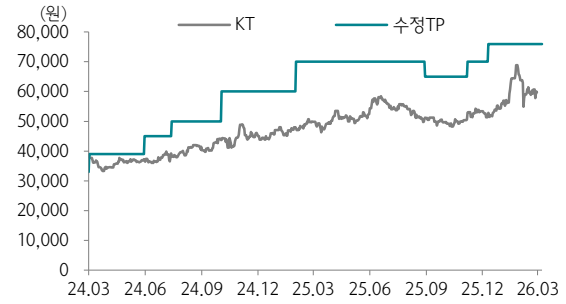
SK텔레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3	BUY	100,000		
26.1.27	BUY	80,000	-12.47%	-9.38%
25.10.31	BUY	55,000	-1.16%	14.00%
25.3.28	1년 경과		-	-
24.3.28	BUY	70,000	-21.72%	-12.14%
23.12.21	BUY	60,000	-14.64%	-9.83%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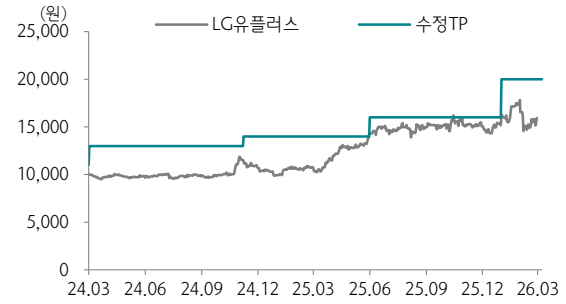
KT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6	BUY	76,000		
25.12.3	BUY	70,000	-24.70%	-22.57%
25.9.25	BUY	65,000	-23.37%	-21.23%
25.2.27	BUY	70,000	-25.61%	-16.57%
24.10.29	BUY	60,000	-24.54%	-18.33%
24.8.9	BUY	50,000	-18.52%	-11.60%
24.6.26	Neutral	45,000	-17.00%	-11.44%
24.3.28	Neutral	39,000	-7.79%	-3.33%
23.9.11	Neutral	33,000	5.93%	27.88%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LG유플러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27	BUY	20,000		
25.6.27	BUY	16,000	-6.38%	1.31%
24.12.4	BUY	14,000	-19.13%	2.14%
24.11.26	BUY	13,000	-10.26%	-8.46%
24.3.28	Neutral	13,000	-24.06%	-13.54%
23.12.21	Neutral	11,000	-8.00%	-4.64%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3월 3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2026년 3월 31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6.76%	3.24%	0.00%	100%

* 기준일: 2026년 03월 28일